



보완이 요망된다.

제도의 보완과 관련하여 관심사항은 가격변동의 폭이다. 이상급등의 경우에는 기금·관세조정등 별도대책을 구상중이라 하나, 그폭이 미미할 경우 가격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가격변동 내역의 통보 및 주유소 가격표 조정등 세부시행 단계에서의 비효율과 소비자에게 미칠 심리적부담, 기수요발생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가격변동 요인을 다음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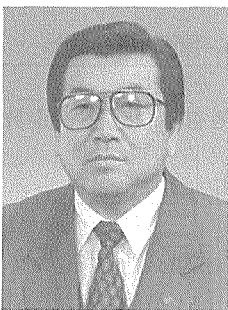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연동(連動)'이란 단어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환경 여건의

변화가 즉시 Feedback되며, 일련의 계획된 과정 아래 활동하는 매우 동태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가연동제는 과거의 가격제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급자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석유제품의 물류흐름의 원활, 즉 수급안정에 있는 것임을 다시 인식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이 새로운 유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나아가 유가자유화 제도도 조기에 도입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

유가연동제, 그 이후③

# 연동제 이후 주유소의 운영



李炳善  
(첨단주유소 대표)

유류업계에 손을 댄지 어언 30년. 우연한 기회에 유공대리점 大田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 광유회사와 인연을 맺어 뒷박장수로 시작하여 현재 첨단 주유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오늘에 이르렀다.

시대상황과 변천에 따르면서 건디기 어려웠던 고통을 참으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첨단주유소 월 판매량 4,000 드럼을 판매하는 업소가 된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대덕연구 단지내 소재하고 있으면서 '93세계박람회를 치루었고, 별다른 손색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남달리 총애를 받으면서 명문 주유소로 지난해 유공에서 선정한 베스트 업소로 대전·충남을 대표하여 수상한 예도 있다.

계속 발전하는 유류업계의 뒷받침에 기승한 부담을 안고 시설물, 서비스기기, 건



축 등 투자에 기쁨이나 어려운 이 때, 새삼스러운 유기연동제라는 용어앞에 적응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고객과의 심심치 않은 의견대립, 이해 못하는 문제가 생겨 수시 어려움을 겪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구입이나 판매에는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나 아직 연동제라는 새 단어 앞에 익숙치 못한고로 고객들과 약간의 가격마찰을 겪는 고통이 있다.

우리 업소로 말하면 유기관과의 단가 계약 체결로 인한 문제이다. 과거의 예로 보면 1년을 기준하여 체결할 조건이 1개월마다 가격의 변동문제로 이해 못하는 견해차이 등의 시비, 시대상에 걸맞게 설치한 컴퓨터 POS시설에 조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고통이 따른다.

가격변동에 민감한 단골 고객들이 우왕좌왕하며 어느 주유소가 더 나은 업소인가 하는 것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연동제 실시 이후 가격의 상하폭이 그리 크지 않는 한 고객을 유치하며 예나 다름없이 영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익숙해지고 고객들이 연동제라는 단어말에 적응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연동제라는 문제앞에 더 큰 어려움이라면 우후 죽순처럼 난립하는 신규주유소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무책임한 가격서비스, 판매촉진에 과다한 경쟁으로 기존주유소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하고 보면 상환채권이란 굴레 앞에 어려움을 당할 주유소들이 허다하리라 생각도 해본다. 채권의 변제보다 현상 유지도 못할 업소

**그러나 연동제 실시 이후  
가격의 상하폭이 그리 크지  
않는 한 고객을 유치하며  
예나 다름없이 영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여기저기 속출하여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업소가 없지 않다고 보면 내실을 기하면서 예나 다름없이 손님은 왕이라 생각하고 한번 오신 고객이 다시 찾도록 모든 종사원은 거짓없는 친절과 더 나은 봉사 서비스로 끈질기게 노력함이 안정된 업소의 면모를 유지하며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과다한 투자 경쟁은 절대 금물이다.

경영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속의 경쟁앞에 힘있게 대처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며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서 하늘이 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에 임할 때, 승리자로서 부끄러움없이 큰 소리치며 나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